

이야기 카드 1

‘조용한 애’ 해솔

해솔이는 반에서 ‘조용한 애’로 불린다. 발표 시간엔 목소리가 작아지지만, 친한 친구들과 있으면 누구보다 수다스럽다. 해솔이는 요즘 ‘조용한 애’라는 말이 맞는지 헷갈린다.



이야기 카드 2

‘공부만 하는 애’ 은채

은채는 성적이 좋아 ‘공부만 하는 애’라는 말을 듣는다. 사실 은채는 교과서 밑에 스케치북을 숨겨 두고, 쉬는 시간마다 만화를 그린다. 아무도 그 모습을 모른다.



이야기 카드 3

‘분위기 메이커’ 로운

로운이는 늘 반을 웃기는 ‘분위기 메이커’다. 그런데 요즘은 기분이 안 좋은 날에도 웃겨야 할 것 같아 피곤하다. 친구들은 로운이가 조용하면 “오늘 왜 그래?”라고 묻는다.